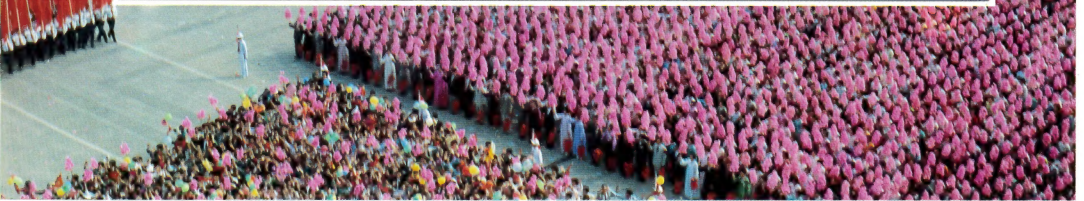
인민을 위한 한길에서

인민을 위한 한길에서

조선 • 평양 • 조선화보사
1997

혁명의 성산 백두산천지

창광거리형성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0. 4)

시위군중들의 열렬한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인민들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3. 9)

간고하고 준엄한 조선혁명의 길은 언제나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으로 빛을 뿌리고있다.

이 영광의 로정에는 조선혁명의 개척자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이민위천》을 필생의 목적으로, 정치철학으로 내세우시고 헌신분투해오신 위대한 창조, 은혜로운 사랑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일찌기 도탄에 빠진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김일성**동지의 주체혁명위업은 오래전부터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함께 수행되여 왔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계시면서 당과 혁명을 령도해오신 30여년 퍽 이전부터 위대한 수령님을 보좌하시여 전국 각지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며 당사업과 군사업, 사회주의건설의 전반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오시였다.

이 장구한 나날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인민과 함께 라는 공동의 사명과 목적으로 혁명활동을 일관시켜오신 우리의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수십년을 하루와 같이 준엄한 혁명의 길을 함께 헤치시며 사색도 구상도 같이 하고 창조와 건설도 같이 하며 동고동락하시였다.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뜻과 정, 심혈과 로고를 합치고 또 합쳐오시였다.

하기에 언제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력사에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자욱이 새겨져있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혁명활동력사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자욱이 수놓아져있다.

이 위대한 혼연일체의 로정에서 **김일성**동지께서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일찍부터 사상리론활동을 함께 벌리시였으며 수령님께서 우리 인민의 토양에 씨를 뿌리시고 키워오신 주체사상을 장군님께서 무성한 숲으로 가꿔 풍만한 열매를 맺게 하시여 인민에게 가장 고귀한 사상정신적재부로 안겨주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이것은 오랜세월 무지와 몽매, 착취와 억압속에 시달려온 인민대중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되게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두분께서는 주체사상의 빛발로 인간의 존재와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우시고 인민의 자주적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지름길을 휘황히 밝혀주시였다.

조선에서 사회주의농촌건설의 웅대한 강령으로 그 생활력이 확증되고있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에서 제시된 중요한 문제도 두분께서 진지한 토의를 진행하시여 내놓으신것이였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인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에 관한 사상과 리론도 두분께서 사색과 탐구를 합쳐 내놓으신것이였다.

인민을 위한 한길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당과 국가의 로선과 정책을 함께 작성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도 함께 조직하시였다. 오랜 세월 두분께서 함께 진행하신 사업토의의 중심에는 언제나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놓여있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생전에 **김정일**동지는 자신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인민생활을 더 높일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늘 말한다고, 우리 두 사람사이에 주고받는 이야기의 대부분은 인민생활과 관련된 문제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는것을 당과 국가 활동의 최고목표로 내세우시고 인민생활문제에서는 만족이 있을수 없다고 하시며 인민들이 쓸 소비품생산문제를 정사로 내세우시는 분이 우리 수령님이시고 우리 장군님이시다.

하기에 나라의 민족경제를 건설하려고 하여도 사회주의문화의 대화원을 더 아름답게 가꾸시려 하여도 늘 함께 의논하시며 인민에게 더 잘 복무하는 경제와 문화를 건설하도록 하시고 거리를 하나 건설하고 살림집을 하나 일떠세워도 인민을 위한 만년대계의 기념물이 되게 하시는것이다.

인민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함께 애쓰시며 하나에서 열까지 그 해결방도를 찾아주시고 막장에서 일하는 탄부들의 소공구와 어린이들과 학생들에게 해줄 새옷과 학용품도 함께 일일이 보아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인민에게 사랑을 베푸시여도 언제나 함께 베푸시였다.

두분께서 어느 때나 변함없이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시면서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며 보살피시는것이 있다면 그것은 인민이다.

그 인민에게 기쁨으로 되는 일이라면 바다도 밀어내여 땅으로 만드시고 산도 들어옮기시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였으며 그렇게 창조하신 그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아낌없이 베푸시였다.

우리 인민이 누려가는 행복 거기에는 례외없이 인민에게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보살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와 로고가 깃들어있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혜로운 사랑의 빛발이 어려있다.

하건만 두분께서는 늘 인민에게 더 줄수 있는것이 없는가 마음쓰시며 무상치료를 받는 인민에게 더 좋은 의료기구를 마련해주어 영원히 무병장수를 노래하도록 해주자고, 무료로 실시하는 11년제의무교육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어떤 조치를 더 취해야 하는가 하시며 인민들이 더 좋은 살림집에서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잘 먹게 하시려고 온갖 심혈을 기울이시였다.

참으로 우리의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하시는 천만가지 모든 일은 다 인민의 념원과 지향과 요구에 대하여 헤아리시고 그것을 천으로 만으로 더 꽃피워주기 위한것이였다.

인민을 위해 복무하자, 이것이 생의 출발점으로 종착점으로 되여야 한다고 하시며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시며 그들의 창조력을 분발시켜나가시는 현지지도의 길도 두분께서는 언제나 나란히 걸으시였다.

비오는 새벽에도 눈내리는 깊은 밤에도 공장과 농촌,

어촌, 산촌을 찾아 함께 걸으시며 인민의 행복을 걸음걸음 가꾸어나가셨고 길없는 감탕밭도 파도사나운 배길도 열어나가시며 로고를 이어가시였다.

인민을 위해서 한평생을 다 바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는 한편 **김정일**동지께 있어서는 묻어둘수 없는 아픔이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짊어지신 그 중하를 자신의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를 미리 간파하시고 앞질러가시며 그를 실현하기 위한 거창한 투쟁을 몸소 이끄시였다.

수령님의 로고를 덜어드리고 수령님께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 거기에 **김정일**동지의 인생관이 있다. 그래서 인민이 요구하고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 일이라면 전당, 전민을 이끌어 불과 몇해사이에 세계적본보기가 될 훌륭한 일을 해놓으시는것이다.

그이께서는 수령님께서 인민에게 좋은 살림집을 마련해주고싶어하시면 창광거리, 광복거리, 통일거리 같은 웅장한 거리에 리상적인 살림집들을 일떠세워 인민에게 무상으로 안겨주시였다.

수령님께서 인민에게 학습당을 마련해주고싶어하시면 인민대학습당을 나무랄데없이 일떠세워주시고 물놀이장을 지어주고싶어하시면 지체없이 유희장, 물놀이장을 건설하여주시였다.

인민을 위해 새로운 공장이 또 더 있어야겠다고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면 산을 허물고 바다를 메우는 거창한 대건설공사를 벌려 공장을 완공해놓으시고 새 제품을 팡팡 생산해놓게 하시였다.

이렇게 마련하신곳에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인민에게 더 좋은 생활조건을 안겨주게 되였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는 수령님의 모습에서 행복과 보람을 느끼시는 **김정일**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자신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어버이수령님의 심려와 로고를 덜어드리려는 한가지 생각만 있다고 하시며 일군들에게 우리가 일을 더 잘하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순간의 휴식도 모르시는 수령님을 기쁘게 해드리자고 말씀하군 하시였다.

그 열화같은 충성심을 안으시고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천리마속도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사회주의총진군을 이끄시여 우리의 경제력을 백방으로 다지시고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게 하시였으며 수령님의 의도대로 문학예술사업을 지도하시여 인민대중이 문학예술의 창조자, 향유자로 그 자랑을 한껏 떨치는 인류문예사에 기록된 문학예술의 일대개화기를 열어놓으시였다.

그이께서는 수령님의 군건설위업을 빛나게 계승하시여 우리의 혁명무력을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믿음직한 보위자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조국통일위업수행에서도 수령님의 구상을 받들고 정력적인 활동을 벌리시여 우리 민족과 인민의 존엄을 떨치게 하시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오늘도 수령님의 유훈과 인민의 념원을 한몸에 지니시고 당과 국가의 모든 사업을 령도하시며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걷고 또 걷고계신다.

그이께서는 경애하는 수령님과 인민간의 혈연적관계를 깊이 헤아리시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무장하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구호를 제시하시고 수령님과 인민이 영원히 일심동체가 되게 하여주시였다.

그이께서 금수산기념궁전을 우리 민족의 최대국보로, 주체의 최고성지로 꾸리시고 수령님을 생전의 모습대로 정중히 모셨을 때 우리 인민은 **김정일**동지의 충정과 함께 수령님의 인덕정치를 그대로 펴나가시려는 그이의 불변의 의지를 심장으로 감수하였으며 그이를 위대한 령도자로 높이 모신 영광과 행복을 더욱 절감하였다.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은 그이께서 수령님의 생전의 웅대한 구상을 더욱 빛내이시기 위하여 어떻게 청류다리(2계단)와 금릉2동굴을 웅장하게 일떠세우셨고 평양—향산관광도로, 안변청년발전소, 월비산발전소를 건설하시였으며 어떻게 구월산, 칠보산, 룡문대굴을 인민의 문화휴양지, 관광지로 훌륭하게 건설하시였는가를 력사에 뚜렷이 기록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중하를 다 맡아안고계시는 지금도 그이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기저에는 인민이 놓여있고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시려는 사랑이 놓여있다. 오히려 수령님께서 못다 주신 사랑을 배가하여 안겨주시려는 그이의 열정, 신념이 그이께서 옮기시는 걸음마다에서 철철 넘쳐흐르고있다.

우리 인민은 온 나라가 어버이수령님을 잃고 눈물속에 잠겨있던 때에 그이께서 강원도 김화군 산골에서 출생한 세쌍둥이와 산모를 위해 평양산원에 전화를 거시여 그들을 데려다 돌봐주도록 이르시고 비행기까지 보내주시고 농촌의 이름없는 로인들에게 100돐 생일상을 차려주신 사랑의 세계에서, 인민의 보다 유족한 생활을 위해 공장과 농촌, 건설장, 국가과학원과 인민군병사들의 초소를 찾으시는 그이의 헌신의 길에서 수령님께서 펴신 인덕정치가 더욱 활짝 꽃펴나고있는것을 보고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수령님을 받들어 항일혁명투쟁을 한 로투사들을 선배로 내세우고 보살펴주시며 정견과 신앙, 과거여하에 관계없이 애국하는 사람들을 다 사랑해주시고 그들의 자녀들의 생활문제까지 극진히 돌보아주시는 그이의 사랑과 은덕속에서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며 인민을 위하시는 **김정일**동지의 위대한 풍모를 보고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인민을 위한 길에 함께 계시며 영원히 인민을 위한 사업을 계승하고 계신다고 심장으로 웨치며 위대한 수령님을 천세만세 모시고 경애하는 장군님을 충성다해 높이 받들어나가고 있다.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빛내여 가시며

주체사상탑

유서깊은 혁명전적지인 삼지연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7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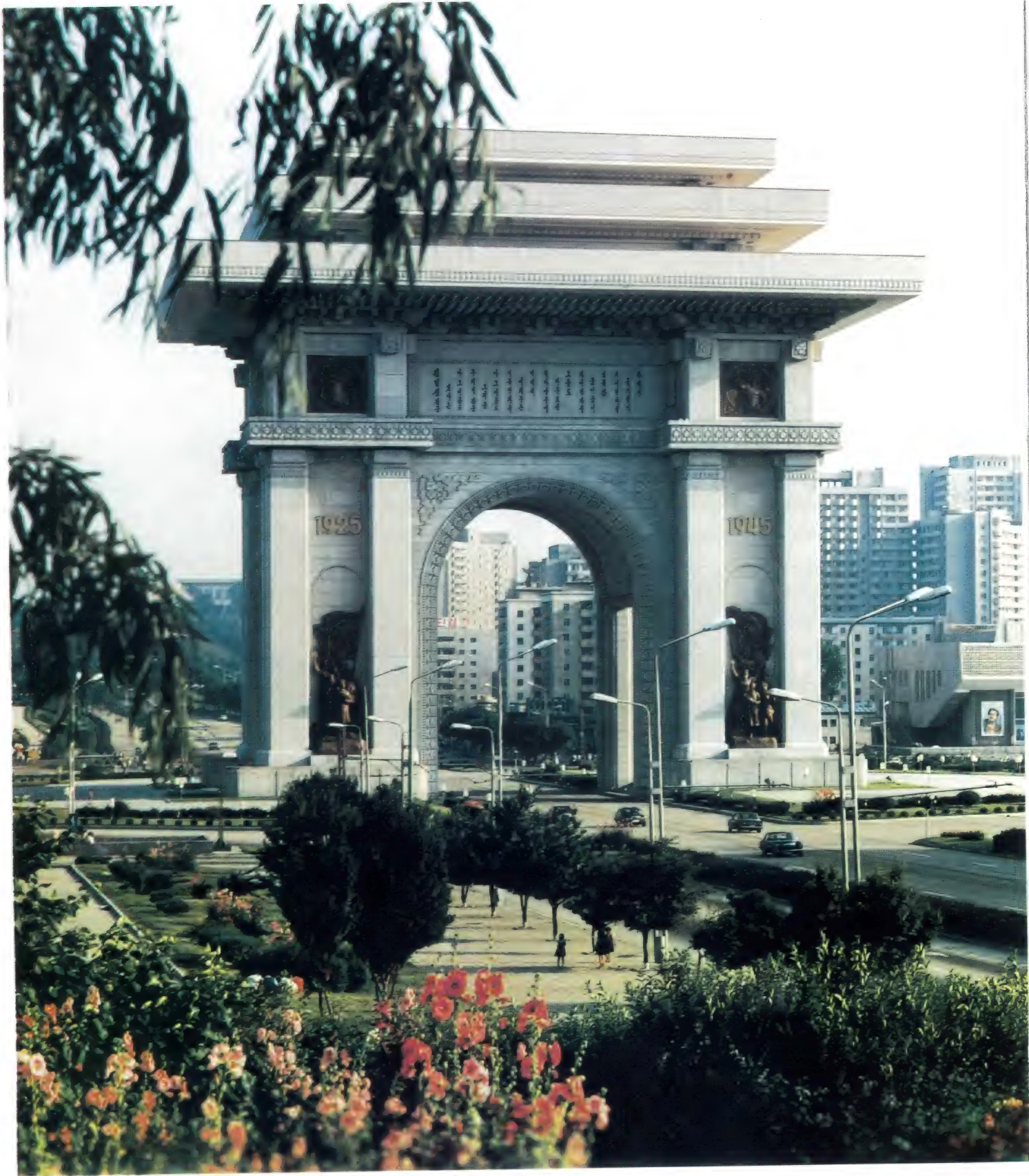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장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장에서 사업을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0. 10)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를 경축하는 근로자들의 야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0. 10)

당창건기념탑 (조선로동당창건 50돐을 맞는 1995년 10월에 건립)

주체사상탑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령도밑에 위대한 수령님 탄생 70돐이 되는 1982년 4월에 준공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사상탑을 돌아보시였다.(1982. 4)

개선문은 조국광복을 이룩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후세에 길이 전하려는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구상과 령도밑에 1982년 4월에 준공되였다.

개선문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2. 4)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날에 평원군 삼봉협동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6.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35돐경축 군중시위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3. 9)

1948.9.9

수령김일성동지의 만수무강을
청년들은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한 청년전위가 되자!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 제8차대회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3. 2)

자립적민족경제를 마련하시는 길에서

출강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대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5. 5)

황해제철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6. 5)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거룩한 자욱을 이어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3. 4)

룡성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8. 6)

룡성의 로동계급은 자체의 힘으로 1만톤프레스를 완성하였다. (1985년)

탄부들의 로동보호물자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2. 11)

종합채탄장

검덕광산채광장건설도면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2. 6)

창성군 유평협동농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5.7)

리현리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2. 1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 여러차례 현지지도하신 청산협동농장벌에서의 벼가을

사나운 풍랑을 헤치시며 신도를 찾으시여 화학섬유의 원료기지를 더욱 튼튼히 꾸릴데 대하여 교시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6.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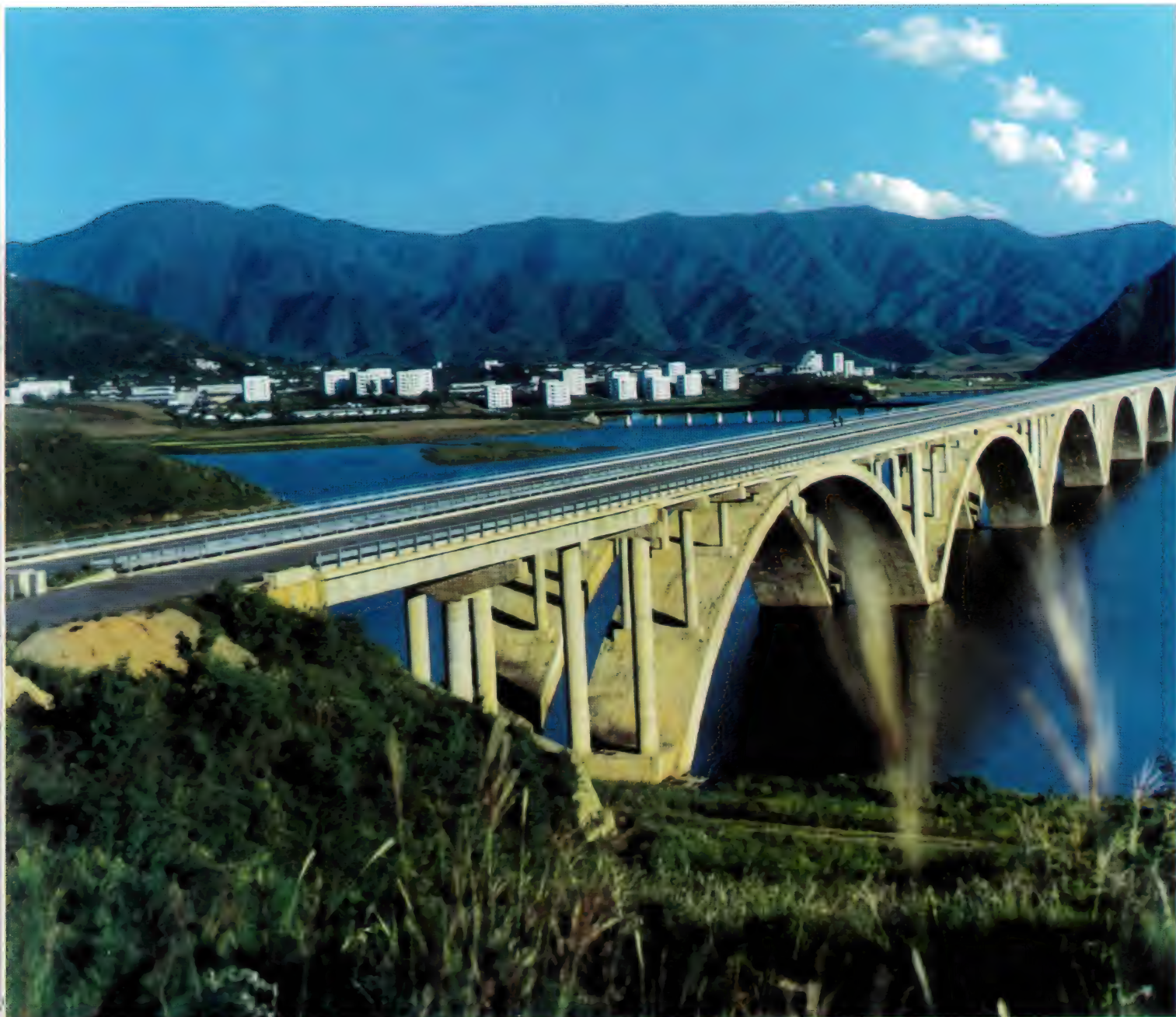
화학섬유원료기지인 신도에서의 갈수확

2중3대혁명붉은기쟁취전투장

나라의 수산업발전을 위하여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8. 3)

충성의 다리개통식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3. 9)

평양—개성사이도로

서해갑문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5. 9)

20리 날바다에 언제를 쌓아 건설한 서해갑문.
이 갑문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인민군군인들과 건설자들이 단 5년동안에 완공하였다.

평양지하철도의 영광역

평양지하철도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7. 4)

조선콤퓨터쎈터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0. 10)

새로 만든 농기계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2. 8)

평양국제비행장건설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5. 7)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서 생산한 폴리프로필렌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7. 11)

박천견직공장에서 생산한 모포를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4. 4)

녕변견직공장에서 비단천생산

사회주의문화의 화원을 가꾸어가시며

김일성종합대학이 자리잡고있는 룡남산의 아침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보시였다.(1989. 5)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10만 3천여평방메터의 연건축면적을 차지하고 5천여명을 수용할수 있는 학생소년들의 과외활동기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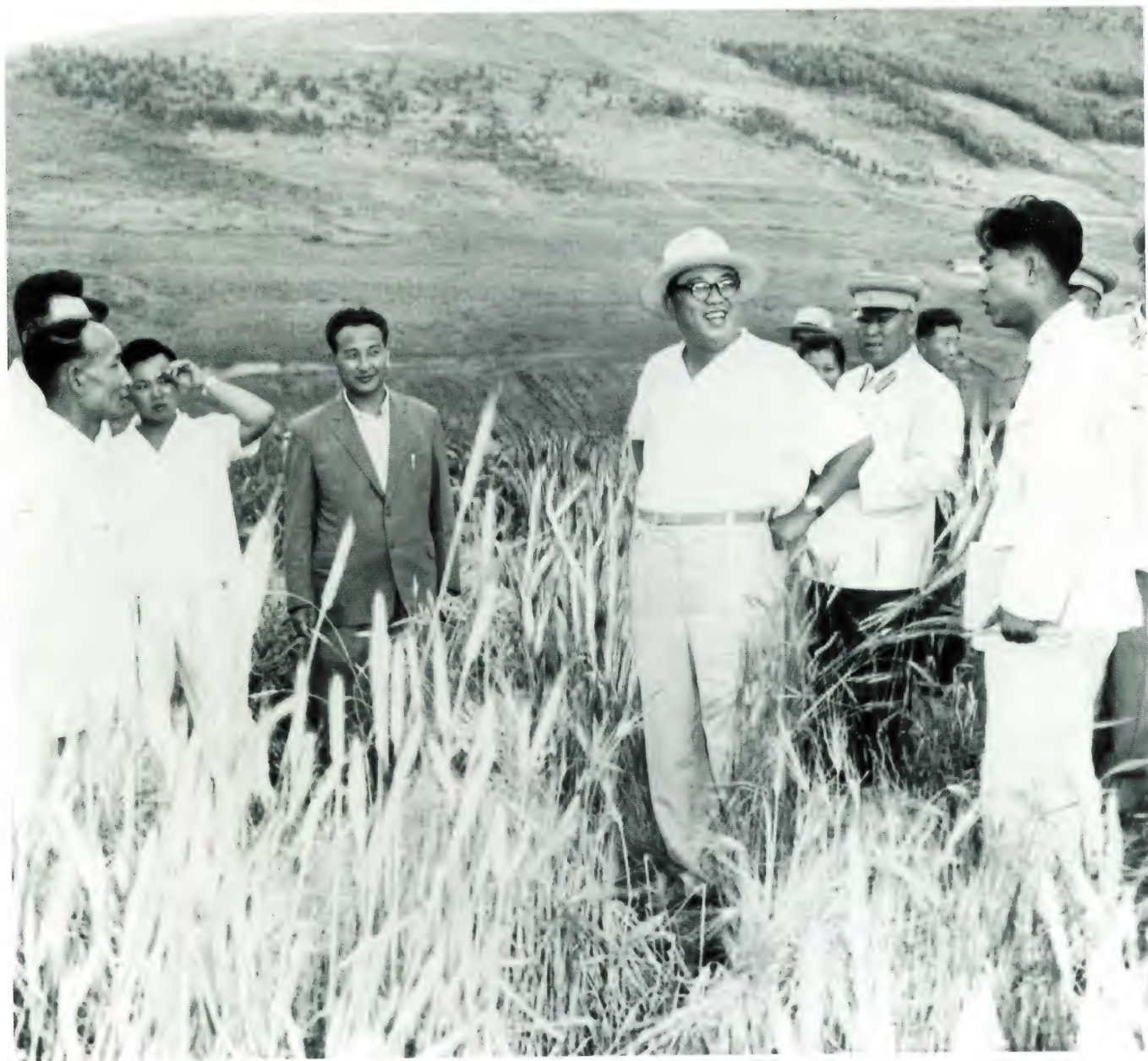
평양제1고등중학교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5. 2)

평양제1고등중학교

김일성종합대학체육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9. 6)

인민경제대학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9. 6)

인민대학습당

인민대학습당전망대에 오르시여 평양시 전경을 부감하시면서 수도를 더욱 아름답고 웅장하게 꾸릴 휘황한 전망을 펼쳐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2. 4)

농업과학원 고산지대농업연구소포전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3.8)

과학원 과학전시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3. 11)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관람에 나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73.5)

조선2.8예술영화촬영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7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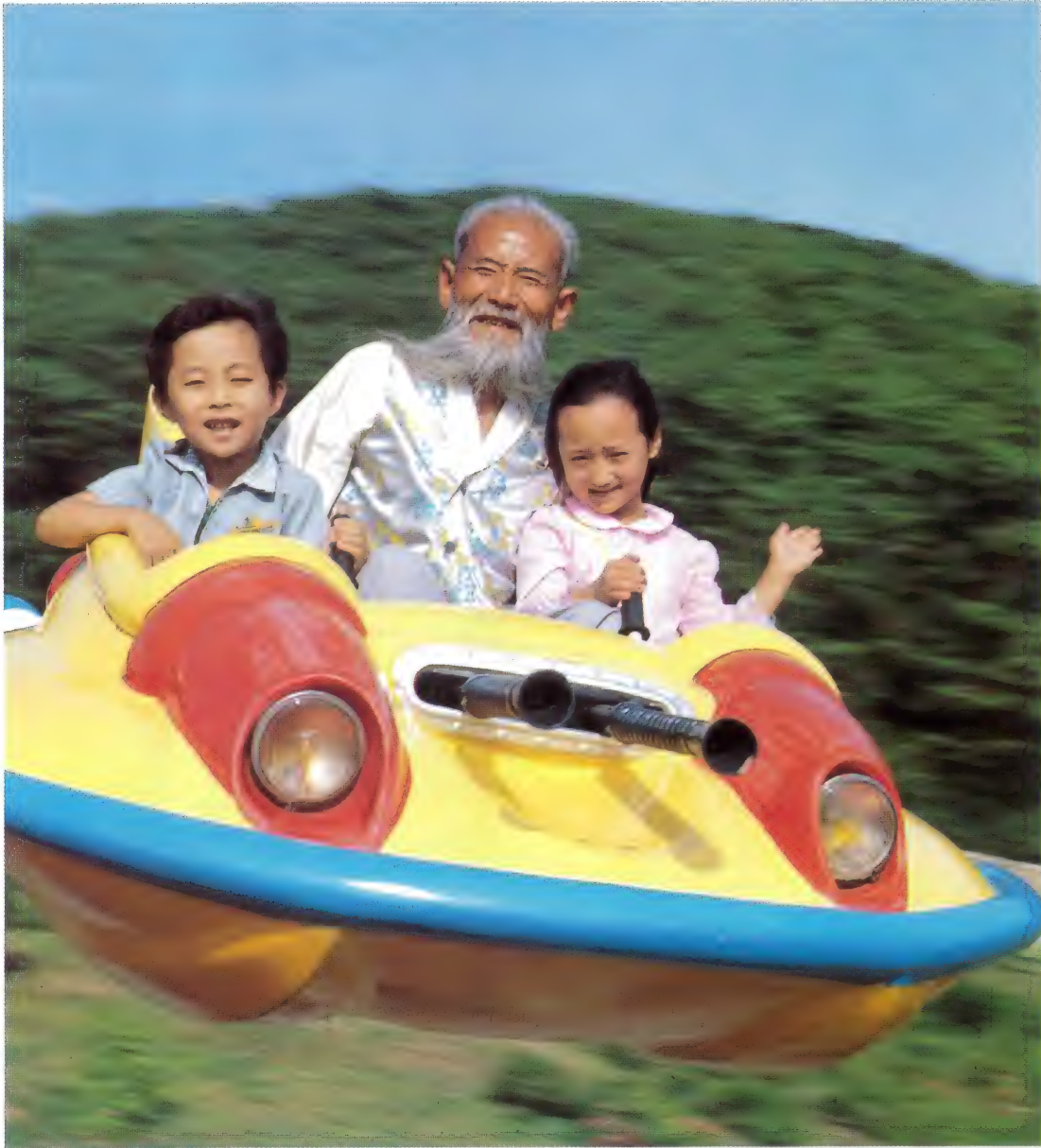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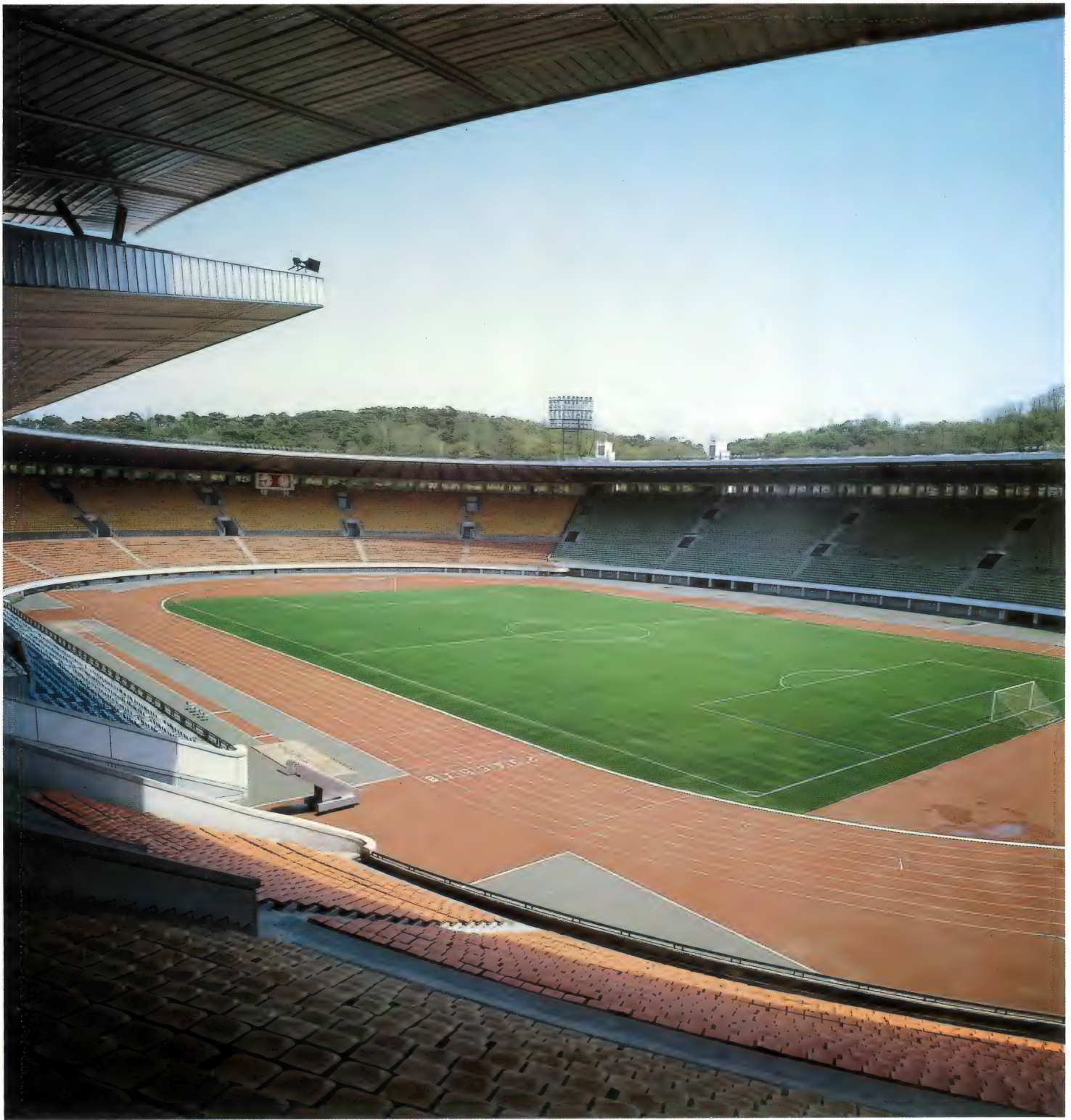
새로 건설된 만수대예술극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76.10)

만수대예술극장

평양산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0.3)

평양산원

고려의학종합병원건설모형사판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2. 12)

우리 인민들은 무상치료제의 혜택속에 60청춘 90환갑을 보낸다.

김일성경기장

새로 개건확장된 **김일성**경기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2. 4)

5월1일경기장은 20만7천여평방메터의 연건축면적에 15만석을 가진 경기장으로서 여러가지 체육경기를 할수 있는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이다.

청춘거리의 롱구경기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8. 9)

청춘거리는 서산축구경기장, 수영경기관, 바드민톤경기관, 중경기관, 경경기관, 탁구경기관, 송구경기관, 롱구경기관, 배구경기관, 력기경기관, 태권도전당 등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로 건설되였다.

온 나라를 금성철벽의 요새로

총대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철저히 보위하려는것은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철석같은 의지이며 신념이다.

조선인민군 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5. 5)

조선인민군 비행구분대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72. 6)

조선인민군 군인들의 훈련모습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7. 4)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의 중심주제 《승리》상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3. 7)

인민들에게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시려고

마음껏 배우며 행복하게 자라는 학생소년들

황해제철소 로동자합숙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6.5)

송림시 운곡동 로동자살림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6.5)

인민들의 식생활을 높이기 위해 로고를 바쳐가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74. 4)

살림집건설에 쓰일 건구견본품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75. 12)

창광원은 연건축면적 3만 8천평방메터에 목욕탕, 물놀이장, 수영장 등이 잘 갖추어진 종합적인 문화위생봉사시설로 1980년에 개원되였다.

창광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0. 3)

청류관

새로 건설된 청류관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1. 12)

어린이들의 옷견본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4. 4)

무료교육의 혜택속에서 첫 등교하는 1학년생들

서산호텔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9. 5)

완공된 창광거리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5. 8)

광복거리는 너비 100메터에 연장길이 15리의 도로 량쪽에 주택들과 여러가지 공공건물들이 특색있게 배치되여 하나의 도시를 이루고있다.

만경대남리부락의 살림집들

만경대남리부락 살림집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5.8)

새로 건설된 만경대물놀이장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5. 8)

평양고려호텔은 높이 140메터의 45층쌍탑건물이다.
이 호텔에는 수많은 연회장, 회담장, 면담실, 영화관, 책방, 오락실, 식당, 국제전신전화설비들이 훌륭히 갖추어져있다.

평양고려호텔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5. 8)

평양지하상점을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7. 4)

궤도전차를 돌아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1. 4)

조국통일성업을 위하여

통일전선탑

해외동포들을 따뜻이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2. 4)

해외동포들을 접견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2. 4)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리진규제1부의장과 같이 신문을 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9. 4)

재미교포 림창영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2. 4)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행사들이 진행되군 한다.
사진은 백두산정에서 조국통일촉진 백두—한나대행진 출정식을 가지고 출발하는 제3차범민족대회 참가자들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대표들을 환영하는 평양시군중대회장

조선의 통일을 지지하는 국제적련대성회의장

자주, 평화, 친선을 위하여

국제친선전람관

외국방문을 마치고 돌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접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4. 7)

온 세계의 자주화위업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6. 5)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65. 4)

인류의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길에 함께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9. 1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40돐**을 경축하여 우리 나라에 온 외국대표들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8. 9)

세계의 자주화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를 토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5. 4)

세계평화수뇌자리사회성원들을 접견하시고 기념촬영을 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2. 4)

평양비행장에서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대표단을 떠나보내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0.3)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주석단에 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89.7)

꾸바공화국 당, 국가 및 무력대표단이 올린 선물을 보아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2. 2)

조선인민군창건 60돐경축행사에 참가한 대표들을 접견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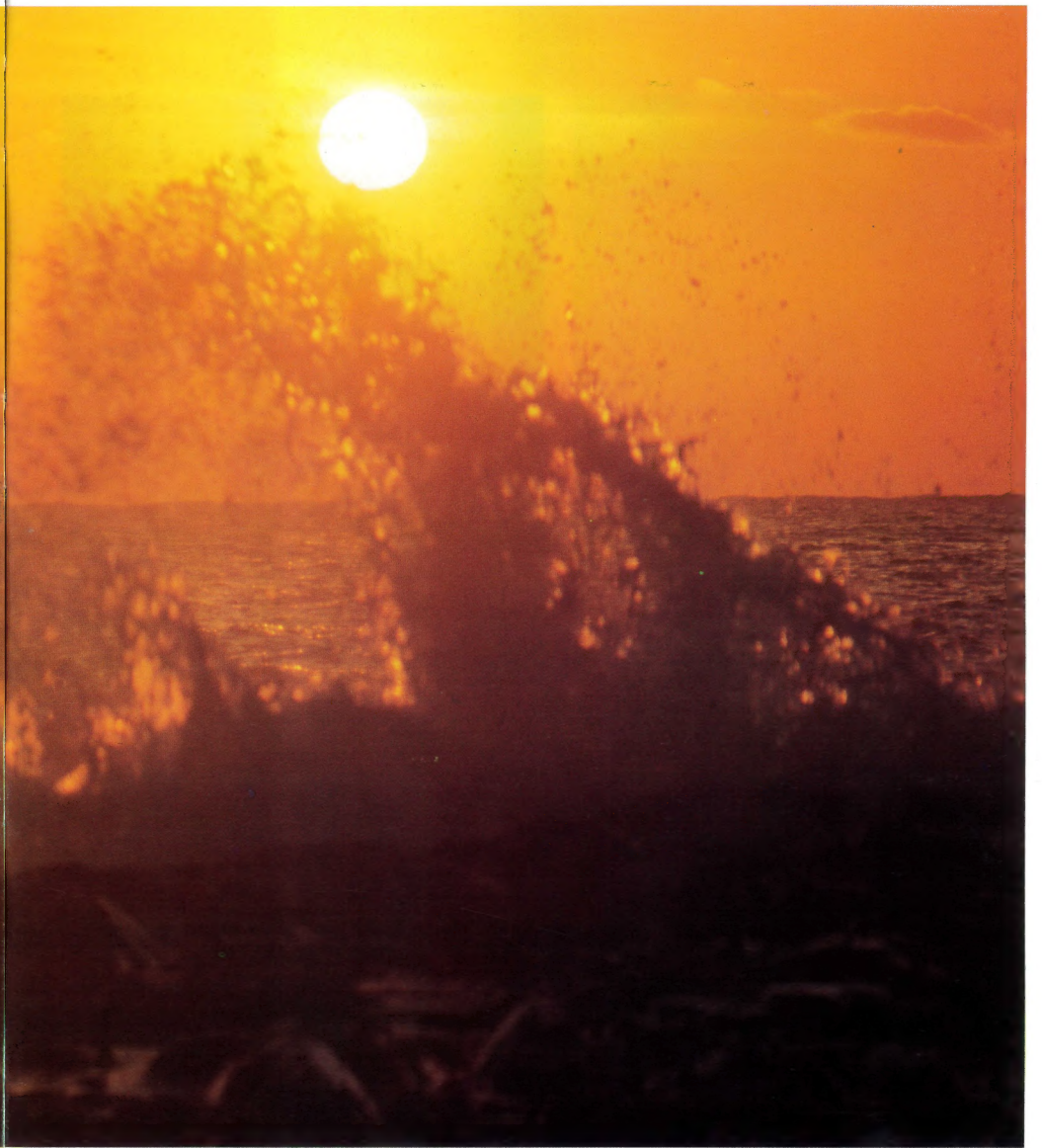
주체위업을 만대에 빛내이시려고

금수산기념궁전건설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1996.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영생의 모습으로 모신 《금수산기념궁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전선중부 오성산일대에 위치하고있는 조선인민군 군부대를 시찰하시고 전방지휘소에 오르시여 적정을 청취하시며 지형들을 료해하시였다.(1996. 3)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일**동지께서 일만경치가 펼쳐진
구월산의 전경을 부감하시였다.(1996. 10)

아침해 빛나는 조선동해

김일성화

김정일화

인민을 위한 한길에서

낸곳 : 외국문종합출판사 조선화보사
인쇄 : 외국문종합출판사 인쇄공장
발행 : 1997년 1월 30일 ㄱ-7057